

# 전북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3362개 업체 평가 결과 발표… ‘해동씨엔에이’ 도내 1위

2026년도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된 가운데 (주)해동씨엔에이가 도내 1위를 차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31일 도내 전문건설업체 3,362개사(등록업종 5,49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도내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주)해동씨엔에이(대표 양승연)가 지

반조성·포장공사업 분야에서 시공능력평가액 730억3,954만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2위는 (주)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683억2,693만원을 기록했으며, 3위는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범중)의 철강구조물공사업(620억71만원), 4위는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481억7,596만

원), 5위는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391억5,095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근홍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와 수주난, 대형 건설사의 지역상생 외면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공사 수행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이번엔 공시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관련 제증명 발급과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내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오상근 기자

##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 실시

개인 15명·단체 15개사 대상 13일까지 진행… 투표 결과 심사점수 50%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2026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를 8월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후보 추천부터 최종 선정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생협력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표 대상은 국민추천심사단의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

정된 개인 15명과 단체 15개사다.

개인 부문에는 기아, (주)메타톤, 삼성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노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코리아세브, 포스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서 다년간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한 인사들이 후보에 올랐다.

단체 부문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롯데백화점, 신용보증기금, SK인텔릭스, LG D&A, LG생활건강, (주)지엔에스기술, KB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오트모터 등 15개 기관·기업이 선정됐다.

국민투표는 동반성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개인과 단체 부문

에서 각각 3표씩, 모두 6표를 행사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상생협력 공적은 동반성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는 13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국민투표 결과는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서 50점이 반영되며, 국민추천심사단 평가 점수 50점과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열리는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 2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정부포상 17점과 장관표창 80점 등 총 97점이다.

/오상근 기자

## JB금융그룹, 상반기 순이익 3857억원 달성… 하반기 질적 성장 전략 추진

J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질적 성장과 AI 기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은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기홍 회장과 전 계열사 경영진, 주요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하반기 순익 목표 달성과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JB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누적 지배지분 순이익 3,85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규모로,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닌 위험가중자산 이익률(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실질적인 이자이익 등 구조적 이익 기반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성



JB금융그룹은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기홍 회장과 전 계열사 경영진, 주요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이자이익 확대와 고효율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비용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이 각각 지역금융 역할 강화, 기업금융 확대, 지점 영업력 강화, AI 및 상품 경쟁력 제고 등 하반기 주요 전략 과제를 발표하고 계열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홍 회장은 “올해 상반기는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시에 자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그룹의 구조적 이익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기였다”며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전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전환(AI·AI Transformation)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AI는 각 자회사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도해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AI 에이전트 활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은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AX 내재화를 위한 특강과 세미나도 함께 진행했다.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B2B 금융 AI 플랫폼 활용 사례와 전사 생산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 회의 2일 차에는 'AI 시대의 전략 과제 도출'을 주제로 한 포럼과 글로벌 혁신기술 동향 분석이 이어졌으며,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과 지역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공유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3일 주요 경영진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과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상호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

##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나서

전북바이오진흥원, 상호존중 서약식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3일 주요 경영진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과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상호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상호 존중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참석자들은 세대와 직급을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업무 목적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무례한 언행을 근절하고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해 스마트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위기 대응, 자율성 존중과 권한 위임을 통한 구성원 성장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전북은행, 광복절 맞아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어린이 대상 특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나의 경제 독립 선언'을 8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은행 본점 1층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에서 진행되며, '광복절에는 나라도, 내 지갑도 독립한다'를 주제로 광복절의 의미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과 접목한 체험형 금융교육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소비와 저축 습

관을 다짐하는 '경제 독립 선언서'를 직접 작성하고 다양한 금융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JB플랫폼 기념 굿즈가 제공된다.

전북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이 경제 독립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와 저축, 계획적인 용돈 관리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금융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새만금국가산업단 1·2공구 업무·상업용지·주차장용지 분양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단장 박승수)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2공구 업무·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산업기능을 지원하는 핵심 업무·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38필지(147,406.1㎡) 규모의 용지가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업무(일반)용지 1필지 △업무(국제)용지 2필지 △상업용지 33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이며,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 분시스템(온비드=www.onbid.co.kr)을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신청은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가능하며, 개찰은 25일, 계약체결은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에서 진행된다.

/권산=김민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